Check for updat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Vol. 76, No. 5 (October 2026) pp. 138-154
Print ISSN 1229-6880
Online ISSN 2287-7827
https://doi.org/10.7233/jksc.2026.76.5.138

재화로서의 기모노

- 자산성과 오복상의 근대 백화점화 -

노무라 미치요
장안대학교 호텔관광과 호텔경영전공 외국인강의전담조교수

The Kimono as an Economic Good

- Asset Functions and the Transformation of Gofuku Merchants into Modern Department Stores -

Michiyo Nomura
Assistant Professor, Hotel Management Major, Department of Hotel Tourism, Jangan University
(received date: 2026. 8. 27, revised date: 2026. 10. 12, accepted date: 2026. 10. 23)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commercial foundations that led to capital accumulation by Japanese gofuku (kimono) merchants and their transformation into modern department stores. Focusing on the period from early modern Japan to the establishment of the department store industry, it examines how the kimono's material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were related to systems of distribution and credit. The study first reviews existing literature in this field on the topics of business, dress, and economic history, together with historical sources reproduced or discussed in these works. It then examines the reuse and recirculation of garments, as well as their use as collateral, alongside procurement, sales, settlement, and the transformation of gofuku businesses into department stores,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Mitsui Echigoya*. The findings showed that the kimono's reusable, straight-cut construction, supported by maintenance and repair techniques, enabled garments and cloth to remain in use. Moreover, through transactions in second-hand clothing markets and pawnshops, the kimono functioned as an asset that could be sold or pledged to obtain funds. Mitsui also organized procurement, cash sales, and remittances, linking its gofuku and money-changing businesses to recover and deploy funds and expand its operations. The study also found that gofuku merchants' transformation into department stores involved the use and reorganization of accumulated product knowledge alongside relationships with customers and trading partners through new financing, changes in retail spaces and corporate organization, and the promotion of fashion. By viewing clothing as capital, this study identifies the commercial foundations of modern Japanese retailing and offers a basis for comparing the development of clothing and commerce across regions.

Key words: assets(자산), capital accumulation(자본 축적), department stores(백화점), gofuku merchants(오복상), kimono(기모노), reversibility(가역성)

이 논문은 장안대학교 2026년도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Michiyo Nomura, e-mail: michiyo@hanmail.net

I. 서론

일본의 백화점에는 오복점(呉服店)을 모태로 발전한 오복계 백화점과 철도 사업을 배경으로 성립한 전철계 백화점이라는 두 가지 큰 계보가 있다. 미쓰코시(三越), 다카시마야(高島屋), 다이마루(大丸), 마쓰자카야(松坂屋) 등의 오복계 백화점은 메이지(明治, 1868-1912) 후기부터 다이쇼(大正, 1912-1926)기에 걸쳐 백화점화를 추진하였으며, 쇼와(昭和, 1926 - 1989) 초기에 한큐(阪急) 등의 전철계 백화점이 등장한 시기에도 백화점업계의 중심 세력을 이루고 있었다(Sueta, 2010). 본고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기모노를 판매하던 오복상(呉服商)이 왜 근대적 백화점으로 발전할 수 있었는가 하는 물음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현대의 의류 소매업에서는 대량생산과 광역적인 유통을 바탕으로 대규모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한편 근세의 오복상은 현대와 다른 생산·유통 조건 아래에서 의복 거래를 통해 사업을 발전시켰다. 착용에 따라 마모되는 의복의 거래가 상인의 자본 형성과 사업 확대를 어떻게 뒷받침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상품인 기모노의 성질과 이를 둘러싼 유통·거래의 체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오복상의 자본 축적과 근대 백화점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한 상업적 기반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모노의 물질적·구조적 특성과 유통·거래 체계의 관계를 검토한다. 이를 바탕으로 미쓰이 에치고야(三井越後屋, 후일의 미쓰코시)로 대표되는 오복상이 의복 거래를 통해 자본을 축적하고 사업을 발전시켜 가는 과정을 고찰한다.

이 연구 과제와 관련해서는 복식사·사회사, 경영사·상업사, 소비경제사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첫째, 기모노의 구조와 유통에 관한 연구에서는 직선 재단과 해체·재구성을 통한 의복의 수명 연장(Maruyama, 2021; Maruyama et al., 2017), 중고 의류 시장과 전당포를 매개로 한 의류의 거래 및 재유통(Tamada, 2008; Terauchi, 2022)이 논의되었다. 둘째, 오복상의 경영에 관한 연구에서는 상품 매입 체계(Takei, 2014), 봉공인 조직(Nishizaka, 2006), 상업과 금융의 관계(Kagawa, 1985; Mandai, 2021), 나아가 백화점화에 따른 경영 조직과 판매 공간의 변화(Hatsuda, 1999; Sueta, 2010)가 검토되었다. 셋째, 의복의 소비와 시장에 관한 연구에서는 섬유·의복의 수요 및 소비 변화와 경제 발전의 관계가 논의되었다(Francks, 2009, 2015; Tanimoto, 1998).

이러한 선행연구는 기모노의 물질적 특성과 유통, 오복상의 경영, 소비시장의 전개에 관하여 많은 연구 성과를 축적해 왔다. 본고는 그 성과를 토대로 의복의 이용·재이용을 둘러싼 구조와 상품 조달·판매·결제를 담당한 오복상의 활동을 관련지어 고찰한다. 이러한 관계를 소비시장의 변화와 함께 검토함으로써, 오복상의 자본 축적과 근대 백화점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한 상업적 기반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본고에서 말하는 기모노(着物)는 고소데(小袖)의 계보에 속하는 일본의 전통적인 긴 옷인 나가기(長着)를 가리킨다. 반물(反物)을 주로 직선으로 재단하여 만들고, 앞길을 겹쳐 띠로 여며 착용하는 의복이다. 또한 직물의 구분에서 견직물을 오복(呉服), 면·마 등의 직물을 태물(太物)이라고 하며, 본고에서는 두 용어를 이러한 의미로 사용한다.

주된 연구 대상 시기는 근세부터 근대 백화점업의 성립기까지로 하고, 대도시의 오복상이 취급한 오복, 특히 고급 견직물과 그 염색·가공품의 유통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의복의 구조와 재이용·재유통에 관해서는 태물로 만든 의복과 침구를 포함한 직물류의 사례도 참조한다. 오복상의 경영에 관해서는 미쓰이 에치고야를 중심으로 상품의 매입·판매·결제를 통한 사업의 발전과 근대 백화점으로의 전환 과정을 고찰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경영사·복식사·경제사의 선행연구와 그 안에 수록·소개된 역사 사료를 검토하

는 문헌연구를 수행한다. 각 문헌에서 제시된 의복의 구조, 유통·거래 사례, 상인의 경영에 관한 연구 결과를 대조하고 그 관계를 고찰한다. 수록 도판은 의복의 구조와 작업 공정, 상업 공간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한다.

제Ⅱ장에서는 기모노의 형태적 특징과 관리·수선의 구조를 정리하고, 재이용·재유통 및 담보로서의 이용과의 관계를 검토한다. 제Ⅲ장에서는 근세 오복상의 매입·물류·판매·결제와 경영 조직을 분석한다. 제Ⅳ장에서는 점포 공간과 기업 조직, 소비를 촉진하는 활동의 변화를 살펴보고, 오복상의 경영 기반이 백화점화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재편되었는지를 고찰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의복을 자본으로 파악하는 관점에서 기모노의 물질적·구조적 특성과 유통·신용 체계의 관계를 검토하고, 오복상의 자본 축적과 백화점화를 뒷받침한 상업적 기반을 고찰하는 데 있다. 둘째, 전통 복식의 가치를 자명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교환가치나 담보로서의 이용과 같은 경제적 기능을 구체적인 역사적 조건에 입각하여 검토함으로써, 서로 다른 지역의 의복과 상업의 전개를 공통의 관점에서 비교하기 위한 시각을 제시하는 데 있다.

II. 기모노의 물질적 구조와 자산성

1. 직선 재단과 반물의 규격

의복의 재단·봉제 방법은 신체에 대한 적합성뿐 아니라 옷을 다시 짓거나 옷감을 재이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도 관련된다. 신체의 곡선을 따라 입체적으로 만드는 서양식 의복에서는 옷감을 각 부분의 형태에 맞추어 재단하고 봉합한다. 이러한 구조는 신체에 대한 적합성을 높이는 한편, 치수를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만들 때에는 재단된 옷감의 형태와 치수에 따른 제약을 수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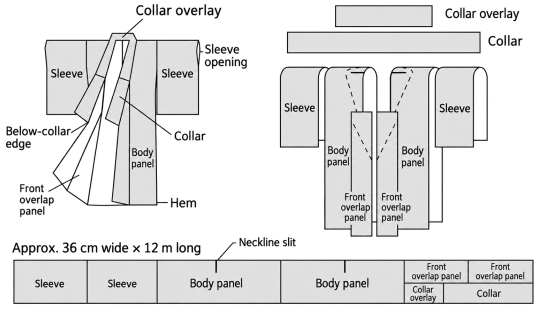
이에 비해 기모노는 반물(反物)이라 불리는 가늘고 긴 직물을 주로 직선으로 재단한 후 봉합하여 만든다. 근세에는 에도 막부(1603 - 1867)가 법령으로 이러한 반물의 치수 기준을 정하였다. Fujiwara (2018)에 따르면, 1626년(간에이[寛永] 3년)의 법령은 견직물과 마직물·면직물에 대해 1반(反)의 길이와 폭을 정하고, 규정에 미달하는 직물을 판매할 경우 이를 몰수하도록 하였다.

1664년(간분[寛文] 4년)의 법령은 견직물과 마직물·면직물에 대해 1반의 길이를 곡척(曲尺)으로 3장 4척, 폭은 견직물 1척 4촌, 마직물·면직물 1척 3촌으로 정하였다. 견직물의 길이는 1626년의 법령에서 정한 3장 2척보다 2척 늘어났다(Fujiwara, 2018).

에도 시대의 의복 규제는 신분 질서의 유지를 기본으로 하면서 검약의 장려 및 사치 억제와 결부되어, 착용뿐 아니라 직물의 생산·판매에도 미쳤다 (Nishimura, 1980). 반물의 치수에 대해서는 1664년(간분[寛文] 4년)의 법령이 전국을 대상으로 공포되었으며, 가나자와번(金澤藩)과 아이즈번(會津藩)에서도 규정 준수를 촉구하는 조치가 취해졌다 (Fujiwara, 2018). 이러한 제도적 통제는 반물의 생산·거래에서 지역을 넘어서는 공통 치수 기준을 마련하는 역할도 하였다.

한편 민간의 생산·거래에서는 법령의 치수 기준도 실제 용도에 맞게 운용되었다. Fujiwara(2018)는 막부가 곡척으로 정한 치수를 민간에서는 직조와 의복 수요에 맞추어 재봉에 사용하는 오복척(呉服尺)으로 바꾸어 적용해 갔다고 고찰한다. 근세 전기 이후에는 새로운 직물 치수 통제령이 확인되지 않으며, 민간에서는 이후 오복척 대신 경척(鯨尺)이 사용되게 되었다.

이처럼 실제 용도에 맞게 치수가 운용되는 가운데, 반물 1반이라는 단위는 직물의 생산·거래와 기모노 제작을 연결하는 기준으로 기능하였다. 기모노는 반물의 폭을 살려 몸판과 소매 등의 부재를 주로 직선으로 재단하고, 여분의 옷감을 잘라 버리지 않고 시접으로 내부에 넣어 만든다(Maruyama et al., 2017). 반물의 재단 방법과 기모노의 구성을



〈Fig. 1〉 Components and Cutting Layout of a Kimono
Note. English redrawing using OpenAI's image generation tool. Prompt: "Replace ALL Japanese and Korean labels with the corresponding English terms".
(Maruyama et al., 2017, p. 76)



〈Fig. 2〉 Women Washing Clothes
Torii Kiyonaga, c. 1788.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Clarence Buckingham Collection, 1925.2335.
(Torii, ca. 1788)

〈Fig. 1〉에 제시하였다.

2. 기모노의 가역성과 이차 유통시장

기모노의 구조가 지닌 경제적 의의는 의복을 해체하여 옷감을 재료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가역성에서 찾을 수 있다. Maruyama(2021, p. 135)는 "기모노는 어디까지나 천의 일시적인 형태"라고 하며, 해체함으로써 천이 재료로서의 가능성을 되찾는다고 논하였다. 또한 Maruyama et al.(2017)은 재료를 남기지 않고 가능한 한 큰 형태로 사용하는 기모노의 구성이 다른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넓힌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가역성은 옷을 다시 짓거나 용도를 바꾸어 같은 옷감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의복과 옷감의 이용 기간을 연장하는 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가역성을 활용한 관리 방법으로 아라이하리(洗い張り)가 있다. 견직물 기모노의 경우 솔기를 뜯어 각 부분의 옷감을 반물 형태로 이어 붙이고 물로 세탁한 뒤, 신시(伸子)나 하리이타(張り板)를 사용하여 옷감을 펼쳐 당긴다. 이후 풀을 먹이는 등의 방법으로 상태를 정돈하고 다시 옷을 짓는다(Maruyama, 2021; Maruyama et al., 2017). 신시를 사용하는 작업 모습을 〈Fig. 2〉에 제시하였다.

Maruyama et al.(2014)은 최소한의 재단과 해체하기 쉬운 봉제가 옷감을 재이용할 가능성을 보존하며, 해체와 재생에 수고를 들임으로써 천과 의복의 순환이 성립한다고 논하였다. 해체한 옷감은 시접을 활용하거나 부재를 재배치하여 치수를 조정하고, 착용자의 체격에 맞게 다시 지을 수 있었다(Maruyama et al., 2017). 또한 중고 의류는 의복 상태뿐 아니라 해체한 옷감으로도 거래되었으며, 보수용 천이나 주머니류, 사키오리(裂織, 낡은 천을 가늘게 찢어 씨실로 사용하여 짠 직물)의 재료 등으로 사용되었다(Tamada, 2010). 이처럼 의복으로서의 형태와 용도를 바꾸면서 옷감의 상태에 따라 반복해서 이용하는 구조가 존재하였다.

에도 후기(18세기 후반~19세기 중엽)의 교토(京都)·오사카(大阪)에서는 의복의 재염색이나 아라이하리 등의 주문을 받아 전문 장인에게 중개하는 싯카이야(悉皆屋)가 활동하였다(Iwaki & Takatera, 2012). 싯카이야는 의뢰받은 작업의 내용에 따라 장인들을 연결하고 가공을 조정하였다(Iwaki & Takatera, 2012; Omori, 2022). 이러한 전문 장인의 기술과 중개 체계는 의복과 옷감의 관리 및 재가공을 통해 그 이용 기간을 연장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기모노의 재이용 가능한 구조와 관리·수선 체계는 착용 이후에도 의복이나 옷감으로서의 이용을 지속하고, 다시 상품으로 유통시키는 기반 중 하나가 되었다. 근세 도시에서는 중고 의류상을 매개로 한 의류의 이차 유통시장이 발달하였으며(Tamada, 2010), 기모노는 착용을 위한 의복인 동시에 매각을 통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의 성격도 지니고 있었다.

중고 의류 시장의 확대는 거래에 종사한 사람들의 수와 매입액에서도 나타난다. Tamada(2010)에 따르면, 1774년(안에이[安永] 3년)의 에도에서는 중고 의류상과 중개상 등 중고 의류 관련 업종의 종사자가 3,951명에 달하였으며, 1853년의 오사카에서도 3,425명이 중고 의류 거래에 종사하였다. 또한 Tamada(2008)가 정리한 1841년(덴포[天保] 12년) 에도의 중고 의류 도매상 4곳의 연간 매입액은 합계 55,500냥(兩), 점포당 평균 13,875냥이었다. 이 연구는 같은 시기 에도의 면직물 도매상 매입액과 비교하여 중고 의류 도매상의 매입 규모도 이에 뒤지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에도에서는 간토(關東) 주변에서 중고 의류를 수집하는 지후루기돈야(地古着問屋)와 교토·오사카 방면에서 중고 의류를 매입하여 회선(廻船)으로 운송하는 구다리후루기돈야(下り古着問屋)가 활동하였다. 오사카는 기나이(畿內)와 세토내해(瀨戶內海) 지역에서 중고 의류·옷감을 모아 각지의 상인에게 도매하는 거점이었다. 중고 의류·옷감의 유통 경로는 서일본의 면직물 생산지에서 도호쿠(東北) 등으로 새로운 면사와 옷감을 운송하는 경로와도 겹쳤다(Tamada, 2010). 이처럼 의류와 옷감의 재이용은 상인의 집하와 지역 간 거래를 통해 각지의 수요와 연결되었다.

중고 의류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에는 착용한 의류뿐 아니라 오복점의 미판매 재고와 유질품도 포함되어 있었다. 미쓰이 에치고야 등의 오복상은 에도의 도미자와초(富澤町)에서 미판매 재고를 매매하였으며(Sugiura & Kobayashi, 2015), 우쓰노미야(宇都宮)의 중고 의류상도 전당포에서 의류를 매입하여 동업자 사이에서 거래하였다(Terauchi, 2022). 또한 중고 의류 그대로 재판매되는 상품뿐 아니라 해체한 옷감도 상품이 되었다(Tamada, 2010). 이처럼 기모노를 의복이나 옷감으로 반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성질은 오복상·중고 의류상·전당포를 연결하는 거래 아래에서 의류의 재유통과 자산으로서의 이용을 뒷받침하는 물질적 기반이 되었다.

3. 자산으로서의 기모노: 전당포 거래와 담보 기능

재이용과 재유통이 가능한 기모노의 자산성은 중고 의류로서의 매매뿐 아니라 전당포를 통한 자금 조달에서도 나타났다. 근세의 전당포에서는 기모노를 포함한 의류가 담보로 취급되었으며, 사람들의 일시적인 자금 조달에 이용되었다(Tamada, 2008; Terauchi, 2022). 의류 소유자는 필요에 따라 소장한 의류를 맡기고 그 가치에 근거하여 자금을 빌릴 수 있었다. 이처럼 기모노는 일상의 의생활을 뒷받침하는 물품인 동시에, 자금이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의 역할도 하였다.

이러한 전당포를 통한 자금 조달은 앞 절에서 살펴본 중고 의류 시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근세의 우쓰노미야에서는 중고 의류상이 전당포에서 유질된 의류를 매입하여 동업자 사이의 경매에 내놓고, 낙찰받은 상인이 이를 각각 판매하는 거래가 이루어졌다. 또한 전당포를 겸업한 중고 의류상은 유질품을 자기 점포의 상품으로 취급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Terauchi, 2022). 이처럼 전당포와 중고 의류상의 거래는 의류의 담보 이용과 재유통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였다. 〈Fig. 3〉은 1900년에 간행된 자료에 묘사된 도쿄(東京)·간다(神田)의 중고 의류 시장 모습이다.

우쓰노미야의 중고 의류상은 주변 지역의 전당포로도 매입하러 나가, 다른 지역의 상인과 경쟁하면서 중고 의류를 모았다. 1854년에는 마루이야 이



〈Fig. 3〉 Second-Hand Clothing Market in Kanda Iwamotocho
Yamamoto Shokoku, 1900. Fuzoku Gaho, no. 205. Image: Wikimedia Commons.
(Yamamoto, 1900)



〈Fig. 4〉 Illustrated Scroll of Craftsmen
Kuwagata Keisai, detail, 19th century. Tokyo National Museum, A-83. Image: ColBase.
(Kuwagata, 19th century)

헤에(丸井屋伊兵衛)가 전당포에서 유질된 중고 의류 140점을 38냥 2부(38兩2分)에 매입하여 동업자 사이의 경매에 출품한 사례가 있다. 이 경매에서는 판매자인 마루이야 자신도 일부를 낙찰받았으며, 물품은 여러 동업자에게 나뉘어 매각되었다(Terauchi, 2022). 이처럼 지방도시에서도 상인의 매입과 가격 평가, 동업자 사이의 거래가 의류의 재유통과 자산으로서의 이용을 뒷받침하였다.

이상과 같이 기모노의 재이용 가능한 구조는 관리·수선 기술 및 중고 의류 시장·전당포의 거래와 결합하여 의류의 지속적인 이용과 자산으로서의 기능을 뒷받침하였다. 이러한 유통은 상품을 평가하고 거래처와 관계를 맺으면서 매매를 수행한 상인의 활동을 통해 이루어졌다.

III. 오복상의 경영과 자본 축적: 상업과 금융의 전개

1. 염직 생산의 분업과 오복상의 상품 조달

기모노는 반물을 주로 직선으로 재단하고 몸판과 소매 등의 부재를 조합하여 만든다. 이와 같은 기본 구조를 공유하면서도 옷감의 소재와 품질, 직조 방법, 염색과 문양에 따라 다양한 상품이 만들어졌다(Francks, 2015). 특히 고급 오복에서는 옷감의 품질과 염색·자수 등의 가공이 상품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였으며, 그 공급에는 다양한 염직·가공 기술이 관여하였다(Francks, 2015; Takei, 2014).

이러한 가공에는 공정마다 다른 기술과 숙련이 요구되었으며, 염색과 마무리 등을 담당하는 전문 장인의 분업을 통해 오복이 상품으로 완성되었다(Takei, 2014). 〈Fig. 4〉는 자수와 스리하쿠(摺箔, 금·은박을 이용한 문양 가공)를 담당하는 누이하쿠야(縫箔屋)의 작업 풍경을 묘사한 것이다.

예를 들어 교유젠(京友禪)에서는 옷감에 문양을 그리는 밑그림 작업, 문양의 윤곽에 풀을 놓아 염료의 번짐을 막는 노리오키(糊置き), 붓으로 색을 넣는 이로사시(色挿し) 등의 작업이 결합되었다. 이러한 염색에 자수나 금·은박 장식을 더하여 다채로운 의장을 표현하기도 하였다(Kyoto Yuzen Cooperative, n.d.; Omori, 2022). 이처럼 서로 다른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작업을 거듭하여 옷감을 완성하는 과정이 고급 오복의 생산을 뒷받침하였다.

여러 장인이 참여하는 생산에서는 공정을 조정하는 것과 함께 가공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에치고야 교토점의 문양 염색에서는 싯카이야가 밑그림·가노코 시보리(鹿の子絞り, 옷감을 조금씩 집어 실로 묶은 뒤 염색하여 작은 반점 무늬를 만드는 기법)·우와에(上繪, 옷감에 색을 더해 그림이나 문양을 그려 넣는 기법) 등을 담당하는 장인들을 연결하고, 장인에게 지급할 가공임의 예상액을 에치고야에서 미리 빌렸다(Iwaki & Takatera, 2012). 에치고야는 가공 위탁과 자금 공급을 연결함으로써 전문 장인의 분업을 뒷받침하였다.

또한 고급 오복의 생산·가공 거점인 교토에는 직조와 염색에 숙련된 장인들이 모여 있었다(Francks, 2015). 교토에서 도카이도(東海道)의 노정으로 약 500km(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n.d.) 떨어진 에도는 막부의 소재지로서 무사와 조닌(町人, 에도 시대의 상인·장인 등을 중심으로 한 도시 주민층)이 거주하는 대도시였으며, 18세기 초에는 인구가 약 100만 명에 달하였다(Hanley, 1997). 에치고야는 교토에서 매입·가공한 오복을 에도의 점포로 보내 판매함으로써, 지리적으로 떨어진 생산·가공 거점과 대규모 소비시장을 연결하였다(Takei, 2014).

이처럼 생산과 소비를 연결한 에치고야는 옷감의 매입에서 가공·판매에 이르는 과정을 조직하였다. 교토점에서는 염색과 봉제 등을 담당하는 부서가 출입 장인에게 가공을 위탁하였으며, 문양 염색의 완성에는 장인의 작업을 조정하는 싯카이야도 참여하였다(Iwaki & Takatera, 2012; Takei, 2014). 오복상의 조달·판매 조직과 전문 장인·싯카이야의 기술 및 조정 기능이 결합함으로써, 분업에 의한 고급 오복의 공급이 성립하였다.

나아가 에치고야는 판매 현장에서 얻은 정보를 상품 제작에 활용하였다. 에도와 오사카의 점포에서 파악한 수요와 유행, 선호하는 의장·색·문양 등의 정보를 교토에서의 가공 지시나 신상품 개발에 반영하였다(Takei, 2014). 이러한 생산과 판매 사이의 정보 교환도 소비지의 수요에 맞는 상품을 공급하기 위한 기반이 되었다.

에치고야는 교토에서의 가공과 함께 직물 산지에서 상품을 확보하는 체계도 마련하였다. 조슈(上州)의 견직물 매입에서는 현지 상인에게 매입을 위탁하는 가이야도(買宿) 제도를 이용하여, 지속적인 거래와 선급금으로 옷감을 확보하는 한편 종업원을 파견하여 매입과 품질 관리를 담당하게 하였다(Takei, 2014). 또한 1864년에 교토점에서는 봉공인이 직급과 담당 업무에 따라 조직되어 매입·가공·다른 점포로의 상품 공급을 담당하였다(Nishizaka, 2006). 이러한 산지 상인과의 거래 관계 및 점포 내부의 인적 조직이 상품 조달과 판매를 뒷받침하였다.

이상과 같이 에치고야는 옷감의 매입과 상품 판매에 더하여, 장인에 대한 가공 위탁, 공정 조정, 가공·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선급을 통해 고급 오복의 공급을 뒷받침하였다. 다양한 염직 기술과 장인들의 분업을 통해 생산되는 고급 오복을 취급하면서, 상품을 매매하는 기능과 생산·조달을 조직하고 자금을 공급하는 기능을 결합하였다.

2. 원격지를 연결하는 공급망과 자본의 회전

에치고야는 교토의 매입점을 거점으로 상품을 조달하여 에도의 판매점에 공급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교토에서는 기존 중개상에게서 매입하는 것에 더하여, 직매입 권리를 지닌 중개상의 점포를 인수하여 그 권리를 승계하고 니시진(西陣, 교토의 전통적인 견직물 생산지)의 일부 직물을 직조업자에게서 직접 매입하는 경로도 확보하였다(Takei, 2014). 이처럼 여러 조달 경로를 결합하는 것이 원격지의 판매 거점에 대한 상품 공급을 뒷받침하였다.

이러한 상품 공급을 지속하려면 매입과 가공에 투입한 자금을 판매를 통해 회수하여 다음 매입에 충당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1673년 에도에서 개업한 미쓰이 에치고야는 가격을 미리 정하고 점포에서 현금과 교환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현금 정가 판매(現金掛値なし)' 방식을 전개하였다(Takei, 2014).

종래 다이묘(大名, 에도 시대에 넓은 영지를 다스리던 무사 계층의 영주)와 무사, 유력 상가를 고객으로 하는 오복상은 주문을 받아 상품을 배달하거나 고객에게 상품을 가져가 판매하였다. 대금은 6월과 12월의 연 2회 또는 12월의 연 1회에 일괄적으로 받는 외상 판매가 관행이었다. 이러한 거래에서는 대금 회수까지의 자금 구속과 대손 위험이 판매 가격을 높이는 요인이 되었다(Yasuoka, 1998).

이에 비해 에치고야는 고객에 관계없이 일정한 가격을 제시하고 점포에서 현금 판매를 함으로써 기존 거래처에 한정되지 않는 고객층을 개척하였다(Takei, 2014). 이러한 판매 방법은 근세 일본의 도시시장에서 확대되는 수요에 대응한 것이었다. 의복 수요와 유행에 따른 생산·판매의 변화가 경제발전을 촉진하는 과정은 유럽뿐 아니라 일본 기모노의 역사에서도 확인된다(Francks, 2015). 〈Fig. 5〉는 에치고야의 점포 내부를, 〈Fig. 6〉은 스루가초(駿河町)의 에치고야 주변 경관을 묘사하고 있다.

판매 방법의 변화는 고객층의 확대뿐 아니라 자금 회수와 재투입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판매 시 대금을 받음으로써 외상 판매에 따른 자금 구속을 줄이고, 다음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쉬워졌다(Takei, 2014; Yasuoka, 1998).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고 회수한 자금을 다시 매입에 충당하는 순환을 정비하는 것은 에치고야의 자본 축적과 사업 확대를 뒷받침하는 기반 중 하나가 되었다.

3. 상업과 금융의 연계 및 자본 축적

에치고야가 에도에서 회수한 판매 대금을 다음 매입에 충당하려면 교토의 매입점으로 송금할 필요가 있었다. 초기에는 거래처인 환전상에게 송금을 의뢰하였으나, 기존 오복상의 에치고야 배척에 동조하는 거래처가 늘어나고 송금 수수료도 증가하였다(Yasuoka, 1998). 이러한 송금상의 과제에 대한 대응은 오복점의 영업과 금융 업무를 연결하



〈Fig. 5〉 Perspective View of the Echigoya Kimono Store in Surugacho
Okumura Masanobu, 1735. Edo-Tokyo Museum, 89200002.
(Okumura, 1735)



〈Fig. 6〉 Surugacho
Utagawa Hiroshige I, from One Hundred Famous Views of Edo, September 1856. Edo-Tokyo Museum, 83200008.
(Utagawa, 1856)

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에치고야는 1683년 에도의 오복점에 료가에텐(兩替店, 화폐 교환과 송금·대부 등의 금융 업무를 하던 상점)을 병설하여 교토로의 송금을 뒷받침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Yasuoka, 1998). 나아가 막부 공금의 송금을 맡았으며, 1691년에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오사카 료가에텐을 설치하였다(Mitsui Bunko, n.d.-a). 오복의 매입·판매에 따른 송금과 막부 공금의 취급이 결합하면서 금융 업무는 사업의 한 축으로 발전하였다(Kagawa, 1985).

막부는 오사카에서 매각한 서국의 연공미 대금 등을 에도로 보낼 필요가 있었다. 한편 에치고야는 에도에서 얻은 판매 대금을 교토의 매입점으로 보낼 필요가 있었다. 에치고야는 서로 반대 방향의 자금 흐름을 연결하여 공금과 상품 대금의 송금을 상계함으로써 현금을 원거리로 운송하지 않고 결제하였다(Kagawa, 1985; Mandai, 2021; Yasuoka, 1998). 공금을 수령한 때부터 에도에 납부할 때까지의 기한은 처음에는 60일이었고 이후 90일이 되었으며, 에치고야는 그동안 무이자로 맡은 공금을 교토·오사카 상인에게 대부하여 이자를 얻을 수 있었다. 나아가 오사카 료가에텐에서는 공금 송금의 형식을 이용하여 자금을 대부하고, 상환을 요구하는 소송에서 우선적으로 재판을 받는 등 오사카의 행정·사법 기관이 제공하는 채권 보호도 활용하였다(Mandai, 2021).

고가의 견직물을 중심으로 취급하는 오복상에게 판매 대금을 회수하고 다음 매입과 가공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일은 상품 공급을 지속하는 데 중요하였다. 에치고야에서는 오복 거래에 따른 송금·결제 체계가 정비되는 동시에, 막부 공금의 취급과 대부를 통해 금융 업무가 전개되었다. 상품 거래가 송금·결제 수요를 만들고 금융 업무가 그 거래를 뒷받침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연계는 자본 축적과 사업 확대를 지탱하는 기반이 되었다.

IV. 근대 백화점으로의 전환과 기모노의 경제적 역할 변화

1. 근대적 소매업태로의 전환과 점포 공간의 변화

막부 말기부터 메이지 유신(1868년)에 이르는 사회 변동 속에서 미쓰이 에치고야는 거래처의 상실과 부실채권의 증가로 경영 부진이 심화되었다(Mitsui Bunko, n.d.-c). 금융 업무에서도 막부의 붕괴와 함께 공금 취급 등 관부를 위한 업무가 중단되면서 종래의 사업 기반이 변화하였다(Mitsui Bunko, n.d.-b). 메이지(明治, 1868 - 1912)기에 미쓰이가(三井家)가 은행업을 경영의 중심에 두는 가운데, 오복업은 1872년 미쓰코시가(三越家) 명의의 경영으로 이전되었다. 이후 1893년 합명회사 미쓰이오복점(三井呉服店)으로 미쓰이가의 사업에 복귀하여 경영 개혁이 진행되었다. 1904년 12월에는 미쓰이가의 사업 재편에 따라 주식회사 미쓰코시오복점(三越呉服店)이 설립되었다(Sueta, 2010). '미쓰코시(三越)'라는 이름은 '미쓰이(三井)'의 '三'과 '에치고야(越後屋)'의 '越'에서 유래한다(Isetan Mitsukoshi Holdings, n.d.). 이 회사는 1904년 말 백화점화 방침을 표명하였으며, 이듬해인 1905년 1월에는 신문에 '디파트먼트 스토어 선언'을 발표하였다(Isetan Mitsukoshi Holdings, n.d.; Sueta, 2010).

점포 공간의 개혁은 미쓰이오복점 시기부터 추진되었다. 1895년에는 도쿄 본점 2층에 진열장을 설치하였으며, 1900년에는 전관을 진열 판매로 전환하였다. 고객이 다다미에 앉아 점원이 가져오는 상품을 보고 고르는 방식에서, 점포 안을 걸어 다니며 진열된 상품을 자유롭게 비교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Hatsuda, 1999; Jinno, 2016). 또한 쇼윈도를 설치하여 점포 앞을 지나는 사람들에게도 상품의 매력을 전달하였다(Jinno, 2016; Nakashima, 2025). 이후 1920년대에는 신발 보관 서비스가 폐지되고 신발을 신은 채 입장하는 방식이 도입되면서, 신발을 벗지 않고 매장을 둘러볼 수 있게 되었

다(Hatsuda, 1999).

진열 판매로의 전환과 병행하여 취급 상품의 확대도 추진되었다. 미쓰이오복점은 1902년 소품 매장을 신설하고, 오복류를 중심으로 하면서 잡화 등으로 구색을 넓혀 갔다. 이러한 개혁에서는 오복 판매에 정통한 기존 점원들의 경험도 활용되었다(Sueta, 2010). 오복 거래를 통해 축적된 상품 지식과 판매 경험을 새로운 상품 구색 및 판매 방법과 연결하는 것이 백화점의 영업 기반 형성을 뒷받침하였다고 볼 수 있다.

〈Fig. 7〉에는 스루가초의 에치고야와 미쓰이구미(三井組)의 서양식 건축물이 묘사되어 있다. 〈Fig. 8〉은 1874(메이지 7)년에 준공된 '가와세 방크 미쓰이구미(爲替バンク三井組)'와 주변 거리를



〈Fig. 7〉 Tokyo Surugaei Kokuritsu Ginko Hanei no Zu
Utagawa Hiroshige III, 1873. Postal Museum Japan.
(Utagawa, 1873)



〈Fig. 8〉 Kawase Bank Mitsuigumi
Building completed in 1874; date of
photograph unknown.
(Shimizu Corporation, n.d.)



〈Fig. 9〉 Display Room at Mitsui Gofukuten
Mitsui Gofukuten, poster, 1896. Waseda
University Library, Bunko 10 8004 3.
(Mitsui Gofukuten, 1896)



〈Fig. 10〉 Postcard of Nihonbashi Mitsukoshi
Probably published in the 1930s. Tokyo Metropolitan
Library.
(*Nihonbashi Mitsukoshi,* ca. 1930s)

촬영한 사진이다. 〈Fig. 9〉는 1896(메이지 29)년의 『미쓰이오복점 진열장의 도(三井呉服店陳列場の圖)』로, 유리 진열 케이스를 사용한 매장과 다다미에 앉아서 판매하는 장면이 함께 묘사되어 있다. 진열 판매로의 전환기에 점포 내부의 모습을 전하는 포스터이다.

점포 공간의 재편에 따라 백화점은 쇼핑에 더하여 식사와 오락, 문화 행사를 즐기는 장소가 되어 갔다. 서양식 요리와 어린이용 식사를 제공하는 식당, 옥상 정원 등이 마련되었으며 음악회와 미술 전시회도 개최되었다(Hatsuda, 1999). 미쓰코시에서는 1914(다이쇼 3)년에 니혼바시(日本橋) 본점 신관이 완성되었고, 1923(다이쇼 12)년의 간토대지진 이후 개수를 거쳐 1927(쇼와 2)년에는 극장 '미쓰코시 홀'이 개설되었다(Hatsuda, 1999). 〈Fig. 10〉은 니혼바시 미쓰코시 본점의 외관을 보여준다.

2. 기업 조직의 근대화와 자금의 조달·운용

오복상에서 백화점으로의 전환은 점포 공간의 변화와 함께 기업 조직 및 자금의 조달·운용 체계를 개편하는 가운데 진행되었다.

메이지(明治, 1868－1912) 말기부터 다이쇼(大正, 1912－1926)기에 걸쳐 미쓰코시(1904년), 마쓰자카야의 전신인 이토오복점(いとう呉服店)(1910년), 시로키야(白木屋)와 다카시마야(1919년), 다이마루(1920년) 등 근세 이래의 오복점이 잇달아 주식회사로 개편되었다(Sueta, 2010). 주식회사화를 통한 자본 도입은 점포 확장과 경영 조직 정비를 뒷받침하였다. 미쓰이오복점에서 미쓰코시에 이르는 개혁에서는 구미의 백화점 경영을 배운 인재들이 경영을 담당하였으며, 기존 점원들의 상품 지식과 거래 경험도 활용되었다. 나아가 취급 상품의 확대에 대응하여 상품 부문별로 매입과 판매를 관리하는 부문관리제가 정비되어 갔다. 마쓰자카야에서는 상품의 가격표와 매출 전표에 부류 번호를 붙여 부문별 매출을 집계하는 방식이 도입되면서, 다양한 상품의 거래를 조직적으로 파악하는 체계가 형성되었다(Sueta, 2010).

또한 오복계 백화점에서는 미쓰코시의 도쿄·오사카, 마쓰자카야의 나고야(名古屋)·도쿄라는 2개 점포 체제를 비롯하여, 여러 도시에 대형 점포를 두고 경영 조직을 정비하는 움직임이 진행되었다(Sueta, 2010). 다이마루도 오사카·교토·고베(神戸)의 3개 점포 체제를 확립하였으며, 1933년에는 각 점포의 공동 매입과 수출입을 담당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상품 조달의 연계를 도모하였다(Sueta, 2010). 이러한 점포망과 매입 체계의 정비를 통해 오복상의 광역적 경영은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고 여러 도시의 소비시장에 대응하는 백화점 사업으로 재편되어 갔다.

3. 유행의 창출과 상업적 기반의 계승·재편

오복상에서 발전한 백화점은 상품의 진열·판매와 함께 새로운 의장과 옷차림을 제안하여 유행 형성에 관여하고, 소비자의 관심과 구매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활동을 전개하였다(Jinno, 2016).

제Ⅲ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에치고야는 전문 장인과 싯카이야에 대한 가공 위탁, 공정 조정, 가공·매입에 필요한 자금의 선급을 통해 오복의 생산·조달을 뒷받침하였다(Iwaki & Takatera, 2012; Takei, 2014). 또한 에도와 오사카의 점포에서 얻은 수요와 유행 정보를 교토의 가공과 상품 개발에 반영하여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였다(Takei, 2014).

근대의 백화점에서는 상품을 공급하는 역할에 더하여, 홍보 매체와 점포 내 행사를 통해 옷차림과 생활 방식을 제안하는 활동이 확대되었다. 무엇을 구매할지뿐 아니라 언제, 어떤 상황에서 상품을 생활에 도입할지를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소비 기회와 수요를 만들어 갔다(Jinno, 2016).

유행을 따르는 행위를 사치로 여기는 의식이 남아 있는 가운데, 초기 백화점은 의복과 생활용품의 구매를 '좋은 취미'를 갖추는 수단으로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취미'란 옷차림과 주변 물품을 선택할 때의 미적 판단과 기호를 뜻한다. 이러한 제안은

회사원을 중심으로 한 도시 중간층의 교양과 생활 향상에 대한 동경에 호소하여 상품 구매를 촉진하는 것이었다(Jinno, 1994, 2016).

미쓰코시는 1905(메이지 38)년에 학자·문인·미술가 등이 참여하는 유행연구회를 결성하여 의복과 가구류의 유행 검토, 오복 문양의 현상 공모와 심사 등을 실시하였다(Hatsuda, 1999). 또한 『하나고로모(花ごろも)』, 『지코(時好)』, 『미쓰코시(三越)』 등의 홍보지를 발행하여 새로운 문양과 상품, 점포 내 행사를 고객에게 소개하였다. 연구회의 검토와 홍보지·진열회를 통한 발신을 결합함으로써 기모노의 새로운 의장을 제안하고 구매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Hatsuda, 1999; Jinno, 1994). 〈Fig. 11〉은 1914(다이쇼 3)년의 '미쓰코시오복점 봄 신문양 진열회' 포스터로, 여성이 홍보지 『미쓰코시』를 손에 든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다카시마야는 1913(다이쇼 2)년에 햐쿠센카이(百選會)를 발족하여 오복 도안의 연구와 신작 염직품의 모집·전시 판매를 추진하였다. 미술사가 등 고문의 의견도 참고하여 계절별 공모 주제를 정하였으며, 1921(다이쇼 10)년부터는 그 취지를 구체화한 참고 도안인 '표준 도안'도 첨부하여 염직업자에게 제시하였다. 염직업자는 이에 따라 옷감을 제작하여 응모하였고, 입선작은 교토·오사카·도쿄의 각 점포에서 전시 판매되었다. 이처럼 햐쿠센카이는 도안 기획과 상품의 생산·판매를 연결하여 기모노의 새로운 의장을 유행으로 제안하는 역할을 하였다(Aoki, 2004). 〈Fig. 12〉는 다카시마야의 『봄의 햐쿠센카이 그래프(春の百選會グラフ)』이다.

시로키야도 홍보지 『유행(流行)』을 통해 가부키(歌舞伎)의 무대 의상을 응용한 '가부키 문양'과 『겐지 이야기(源氏物語)』에서 착상한 문양 등을 소개하였다. 새로운 문양의 상품을 점포 내 전시·행사와 연결하여 발신함으로써, 전통적인 의장을 새로운 유행으로 제안하고 소비자의 구매 의욕에 호소하였다(Nakashima, 2025). 〈Fig. 13〉은 1908(메이지 41)년 8월호 『유행』의 표지이다.

이러한 기모노 유행의 제안 활동과 병행하여 백화점에서는 서양식 의복과 잡화 등의 취급도 확대되었다(Nakashima, 2025; Sueta, 2010). 특히



〈Fig. 11〉 Spring Exhibition of New Kimono Designs at Mitsukoshi Gofukuten Sugiura Hisui, poster, 1914. The Museum of Art, Ehime. (Sugiura, 1914)



〈Fig. 12〉 Spring Hyakusenkai Graph Takashimaya, 37th exhibition, spring 1930. Gravure pages introducing sales floors and new products. Image: Masako Yamamoto, AMeeT. (Yamamoto, n.d.)

1923(다이쇼 12)년의 간토대지진 이후 도쿄 백화점에서는 일용품과 생활필수품의 저가 판매가 확대되었으며, 더 폭넓은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이 정착되어 갔다(Sueta, 2010). 나아가 전후에는 일상복으로 서양식 의복을 착용하는 일이 확산되면서 기모노를 중심으로 한 의생활도 변화해 갔다(Francks, 2015).

한편 서양식 의복의 보급이 진행되는 가운데에서도 기모노는 일상생활에서 착용하는 의복으로 계속 사용되었다. 1957년에도 40대 이상 여성의 약 절반이 집 안과 외출 시 모두 기모노를 착용하였다고 한다(Yoshida, 2020, as cited in Maruyama, 2021).

또한 종전 직후의 심각한 식량난 속에서는 도시 사람들이 소장한 기모노를 농촌으로 가져가 식량과 교환하면서 생활을 유지하였다. 소지품을 조금씩 처분하는 생활은 죽순의 껍질을 한 겹씩 벗기는 모습에 빗대어 '죽순 생활'이라 불렸다(Dower, 1999/2009). 〈Fig. 14〉는 식량을 구하는 사람들로 붐비는 식량 구입 열차의 모습을 보여준다. 기모노는 착용을 위한 의복인 동시에 필요한 식량을 얻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재산으로도 이용되었다.

이후 1960년대 후반에는 기성복의 대량 공급 체계가 갖추어지기 시작하면서 가정에서 의복을 지을 필요성이 낮아졌다. 기모노도 일상복으로서의 비중이 감소하고 예복과 고급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 또한 옷을 뜯지 않고 손질하는 방법이 보급되면서, 옷을 뜯어 세탁한 뒤 다시 짓거나 다른 용도로 고쳐 쓰는 관행은 일상생활에서 점차 멀어져 갔다(Maruyama, 2021).

백화점을 둘러싼 경쟁 환경도 변화해 갔다. 고도경제성장기(1955 - 1973년) 이후에는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 새로운 소매업태가 성장하였으며, 2000년대에는 백화점의 매출 부진을 배경으로 대도시 백화점의 경영 통합과 지방 점포의 폐점이 진행되었다(Sueta, 2010). 미쓰코시와 이세탄(伊勢丹)은 2008년 4월 공동 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경영을 통합하였으며, 2011년 4월에는 두 회사가 합병하여 주식회사 미쓰코시이세탄(三越伊勢丹)이 출범하였다(Isetan Mitsukoshi Holdings, 2012). 최근 미쓰코



〈Fig. 13〉 Cover of Shirokiya's Ryuko
Fifth year, August issue, published August 1, 1908.
(Okada, 2017, p. 40)



〈Fig. 14〉 Train Crowded with People Seeking Food
Date of photograph unknown. Photograph: JIJI. Image: Wedge ONLINE.
(Teruoka & Oshiro, 2025)

시이세탄 그룹에서는 부유층을 포함한 고객과의 관계를 심화하는 판매와 방일객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Isetan Mitsukoshi Holdings, 2026). 백화점은 경쟁 환경과 소비자의 변화에 따라 고객과의 관계 및 영업 체계를 재편해 왔다.

V. 결론

본 연구는 근세의 오복상이 왜 근대적 백화점으로 발전할 수 있었는가 하는 물음을 출발점으로 삼아, 그 자본 축적과 백화점화를 뒷받침한 상업적 기반을 검토하였다. 의복을 자본으로 파악하는 관점에서 기모노의 물질적·구조적 특성과 재이용·재유통 및 담보 이용 구조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미쓰이 에치고야를 중심으로 상품의 매입·판매·결제를 통한 사업의 발전과 근대의 경영 조직 및 판매 공간의 재편을 고찰하였다.

첫째, 반물을 직선으로 재단하여 만드는 기모노는 해체·재구성을 통해 옷감을 반복해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옷을 뜯어 세탁한 뒤 옷감을 펴서 말리는 작업, 재염색, 옷을 다시 짓는 작업에는 전문 장인의 기술과 분업이 활용되었으며, 이는 의복과 옷감의 이용 기간을 연장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물질적 특성과 관리·수선의 구조는 의류를 다시 상품으로 유통시키는 기반 중 하나가 되었다. 또한 중고 의류 시장과 전당포를 연결하는 거래 구조 아래에서 기모노는 착용을 위한 의복인 동시에, 매각이나 담보 제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기능하였다.

둘째, 미쓰이 에치고야는 산지 상인과의 지속적인 거래와 자금의 선급을 통해 상품을 확보하고, 교토의 매입 거점과 에도의 판매 거점을 연결하는 공급 체계를 정비하였다. 현금 정가 판매는 판매 시점에 대금을 회수하고 다음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나아가 미쓰이는 오복점의 영업과 송금·대부 등의 금융 업무, 막부 공금의 취급을 연계하여 상업과 금융 양면에서 사업을 전개하였다. 이처럼 상품의 조달·판매와 자금의 회수·송금·운용을 조직화한 것이 자본 축적과 사업 확대를 뒷받침하는 상업적 기반이 되었다.

셋째, 오복상의 백화점화는 의복 거래를 통해 축적한 상품 지식과 고객·거래처와의 관계를 새로운 자금 조달과 경영 개혁 아래에서 활용·재편하는 과정이었다. 주식회사화, 전문 경영인의 등용, 부문 관리제와 복수 점포의 운영에 더해, 좌식 대면 판매에서 진열 판매로의 전환, 오락·여가 공간의 정비, 홍보 매체와 연구회를 통한 유행의 제안이 추진되었다. 이를 통해 오복상의 경영 기반은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백화점 경영으로 발전하였다. 종전 직후에는 기모노가 식량과의 교환에도 이용되었으며, 이후 서양식 의복과 기성복의 보급에 따라 일상복으로서의 비중이 낮아지고 특별한 날에 입는 옷이나 고급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

이상을 종합하면, 기모노의 물질적·구조적 특성은 재이용·재유통과 담보 이용을 뒷받침하는 구조와 결합함으로써 의복이 자산으로 기능하는 조건이 되었다. 미쓰이 에치고야에서 볼 수 있듯이, 오복상은 의복의 조달·판매·결제를 조직하고 상업과 금융을 연계하면서 자본 축적과 사업 확대를 추진하였다. 백화점화는 그 과정에서 축적한 상품 지식과 고객·거래처와의 관계를 서양식 판매 방식과 기업 조직의 도입, 새로운 자금 조달 아래에서 활용·재편한 역사적 과정이었다. 의복 거래를 통해 형성된 이러한 상업적 기반이 오복상에서 근대 백화점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의복을 자본으로 파악하는 관점에서 기모노의 물질적·구조적 특성을 유통·신용 체계 및 상인의 경영과 관련지어, 오복상의 자본 축적과 백화점화를 고찰한 데 있다. 근세 일본에서 형성된 상업적 기반에 주목하는 것은 서양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 근대 소매업의 발전상을 보완하고,

동아시아 시장에서 의복과 상업의 관계를 검토하는 관점을 제공한다. 또한 전통 복식의 가치를 자명하게 여기지 않고 그 경제적 기능을 구체적인 역사적 조건에 입각하여 파악하는 것은, 서로 다른 지역의 의복과 상업의 발전을 공통의 관점에서 비교하기 위한 실마리가 된다.

다만, 본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본고는 에도를 중심으로 한 도시시장의 형성, 상인의 경영 활동, 막부 공금의 취급을 포함한 금융·결제 제도가 서로 결합한 역사적 조건에 입각하여 고찰한 것으로, 서로 다른 조건 아래에서 이루어진 상업의 발전과의 비교에는 과제가 남아 있다. 둘째, 고급 견직물과 그 염색·가공품의 유통, 그리고 미쓰이 에치고야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오복상의 경영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면·마 직물을 주로 취급한 상인이나 지방의 중소 상인과 재이용·재유통 및 자본 축적의 양상을 충분히 비교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앞으로는 지방의 중소 상인이나 면·마 직물을 취급하는 상인으로 대상을 넓혀, 소재·지역·경영 규모에 따른 유통과 자본 축적의 차이 및 종합 슈퍼마켓 등으로의 업태 전환 과정을 비교·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복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전통 의복에 대해 의복의 구조 및 재이용 관행과 시장 조직·금융 제도의 관계를 비교하고, 의복을 둘러싼 상업 발전 경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비교 복식 경제사적 연구의 전개가 기대된다.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선언: 본고의 초고 작성에서는 Google의 Gemini Notebook(구 NotebookLM)을 논리적 일관성 확인, 문장 정리 및 일본어 초고의 한국어 번역을 위한 보조 도구로 사용하였다. 심사 후 수정에서는 같은 서비스를 수록 문헌의 해당 부분 검색·요약에, OpenAI의 Codex를 문헌 대조, 수정 문안 작성, 파일 편집의 보조에 사용하였다. 또한 〈Fig. 1〉의 영어판은 OpenAI의 이미지 생성 도구를 이용해 원도를 바탕으로 재작성하였다. 이러한 출력을 확인·검토한 후 최종적인 서술, 해석 및 결론은 저자의 판단으로 결정하였다. 논문의 내용과 정확성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자에게 있다.

References

Aoki, M. (2004). Creation of fashion in clothing in the Taisho and early Showa periods: Focusing on Takashimaya Hyakusenkai [大正・昭和初期の服飾における流行の創出: 高島屋百選會を中心に]. *デザイン理論, 44*, 1–17. https://doi.org/10.18910/53173

Dower, J. W. (2009). *Embracing defeat: Japan in the wake of World War II* [*패배를 껴안고: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일본과 일본인*] (E. S. Choi, Trans.). Minumsa. (Original work published 1999)

Francks, P. (2009). *The Japanese consumer: An alternative economic history of modern Japan*. Cambridge University Press.

Francks, P. (2015). Was fashion a European invention? The kimono and economic development in Japan. *Fashion Theory, 19*(3), 331–362. https://doi.org/10.2752/175174115X14223685749368

Fujiwara, M. (2018). On textile dimension control in the early Tokugawa Shogunate: Status of laws and compliance [德川幕府前期の織物寸法統制について: 法令と順守の狀況]. *法政大學大學院紀要, 80*, 163–180. https://doi.org/10.15002/00014586

Google. (2026). *Gemini Notebook* [Generative AI tool]. https://notebook.google/

Hanley, S. B. (1997). *Everyday things in premodern Japan: The hidden legacy of material cultur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Hatsuda, T. (1999). The birth of the department store [*百貨店の誕生*]. Chikuma Shobo.

Isetan Mitsukoshi Holdings. (2012, May 31). *Notice of the 4th ordinary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第4回定時株主總會招集ご通知*] [PDF document]. https://www.imhds.co.jp/content/dam/imhds/corporate/pdf/2012__report.pdf

Isetan Mitsukoshi Holdings. (2026). CEO message [CEO メッセージ]. In *Isetan Mitsukoshi Holdings report 2026* [*三越伊勢丹ホールディングス レポート2026*]. https://www.imhds.co.jp/corporate/ir/annual-report-message.html

Isetan Mitsukoshi Holdings. (n.d.). *History of Mitsukoshi* [*三越のあゆみ*]. https://www.imhds.co.jp/corporate/business/department/history/history-mitsukoshi.html

Iwaki, M., & Takatera, M. (2012). Origin and history of Shikkai [悉皆の成り立ちとその變遷]. *日本感性工學會論文誌, 11*(1), 39–45. https://doi.org/10.5057/jjske.11.39

Jinno, Y. (1994). The birth of taste: The taste created by department stores [*趣味の誕生：百貨店がつくったテイスト*]. Keiso Shobo.

Jinno, Y. (2016). The modernization of consumption and the initial department store in Japan [消費の近代化と初期百貨店]. *Fashion Talks..., 3,* 32–41. https://www.kci.or.jp/articles/files/O__FT03__JINNO__Modernization__of__Consumption__EN.pdf

Kagawa, T. (1985). A study on the history of Mitsui business management in the early modern period [*近世三井經營史の研究*]. Yoshikawa Kobunkan.

Kuwagata, K. (19th century). *Kinsei shokunin zukushi ekotoba* [*近世職人盡繪詞*] [Illustrated scroll]. Tokyo National Museum (A-83). ColBase. https://colbase.nich.go.jp/collection__items/tnm/A-83?locale=en

Kyoto Yuzen Cooperative. (n.d.). *The birth and development of Kyo-yuzen* [*京友禪の誕生と發展*]. https://kyo-yuzen.or.jp/yuzen/history/

Mandai, Y. (2021). Nobe-kawase (deferred draft) loans of the Mitsui Osaka exchange house: An attempt to join legal and economic history [三井大坂両替店の延爲替貸付： 法制史と經濟史の接合の試み]. *三井文庫論叢, 55,* 1–148. https://mitsui-bunko.or.jp/archives/pdf__data/mbr-55__mandai.pdf

Maruyama, M. (2021). *The structure of kurimawashi in kimono: The wisdom of making over clothing* [*キモノの繰り回しの構造： つくりかえていく衣服の知恵*] [Doctoral dissertation, Chiba University]. National Diet Library Digital Collections. https://dl.ndl.go.jp/pid/12701414

Maruyama, M., Tauchi, T., & Kubo, M. (2014, July 4–6). *A meaning and value of Tema in disassembly and making over of Kimono: A study on Tema to rebuild the relations with people and things* [*キモノの解體・再生における手間の意味と價値： 人とモノとの關係を再構築する手間に關する考察*] [Conference presentation]. 61st Annual Conference of the Japanese Society for the Science of Design, Fukui, Japan. https://doi.org/10.11247/jssd.61.0__226

Maruyama, M., Tauchi, T., & Kubo, M. (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orm and the process of making-over in kimono: An investigation by disassembling of two kimonos used as ordinary clothing [キモノにおける形と「繰り回し」の關係： 日常着として使用された2つのキモノの解體調査を通して]. *デザイン學研究, 63*(5), 75–80. https://doi.org/10.11247/jssdj.63.5__75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n.d.). *Roads in the early modern period: Characteristics of the five highways and other roads* [*近世の道： 五街道・諸道の性格*]. https://www.mlit.go.jp/road/michi-re/3-3.htm

Mitsui Bunko. (n.d.-a). *05 Undertaking shogunate commissions* [*05 幕府御用の引き受け*]. https://mitsui-bunko.or.jp/archives/story05/

Mitsui Bunko. (n.d.-b). *22 Opening the country and shogunate commissions* [*22 開國と幕府の御用*]. https://mitsui-bunko.or.jp/archives/story22/

Mitsui Bunko. (n.d.-c). *26 Separation of the kimono store* [*26 呉服店の分離*]. https://mitsui-bunko.or.jp/archives/story26/

Mitsui Gofukuten. (1896). *Display room at Mitsui Gofukuten* [*三井呉服店陳列場の圖*] [Poster]. Waseda University Library (Bunko 10 8004 3). https://www.wul.waseda.ac.jp/kosho/bunko10/b10__8004__03/

Nakashima, T. (2025). Development of "Edo taste" and "Dynasty taste" in kimono designs by Shirokiya Department Store [着物の流行創出における白木屋呉服店による「江戸趣味」と「王朝趣味」の展開]. *東海大學紀要文化社會學部, 13,* 29–43. https://doi.org/10.18995/24344710.13.29

Nihonbashi Mitsukoshi [*日本橋 三越*] [Postcard]. (ca. 1930s). Tokyo Metropolitan Library. https://archive.library.metro.tokyo.lg.jp/da/detail?tilcod=0000000007-00003944

Nishimura, Y. (1980). Clothing regulations in the Edo period: Summary of transitions and character [江戸時代における衣服規制： 變遷の概要と性格]. *家政學雜誌, 31*(6), 432–438. https://doi.org/10.11428/jhej1951.31.432

Nishizaka, Y. (2006). A study on shop assistants of Mitsui Echigoya [*三井越後屋奉公人の研究*]. University of Tokyo Press.

Okada, Y. (2017). Shirokiya Gofukuten's Ryuko, 1908 and 1909 [白木屋呉服店 「流行」1908年、1909年]. *AD STUDIES, 61,* 40–41. https://www.yhmf.jp/as/.assets/vol__61__p40-41.pdf

Okumura, M. (1735). *Large perspective picture of the Echigoya kimono store in Surugacho* [*駿河町越後屋呉服店大浮繪*] [Woodblock print]. Edo-Tokyo Museum (89200002). Tokyo Museum Collection. https://museumcollection.tokyo/works/6238186/

Omori, S. (2022). Division of labor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of the dyeing and processing industry in Kyoto: Consideration of the history of the kimono industry in Kyoto [京都染色加工業の分業體制と組織構造： 京都和裝業の歷史から考察する]. *京都文教短期大學研究紀要, 60,* 13–24. https://kbu.repo.nii.ac.jp/records/3271

OpenAI. (2026). *Codex* [Generative AI tool]. https://openai.com/codex/

Shimizu Corporation. (n.d.). *Kawase Bank Mitsuigumi* [*爲替バンク三井組*]. https://www.shimz.co.jp/works/jp__off__187402__kawase__bank__mitsuigumi.html

Sueta, T. (2010). Histor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Japanese department store industry: Entrepreneurial innov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management organizations [*日本百貨店業成立史： 企業家の革新と經營組織の確立*]. Minerva Shobo.

Sugiura, H. (1914). *Mitsukoshi department-store spring*

new pattern exhibition [*三越呉服店 春の新柄陳列會*] [Poster]. The Museum of Art, Ehime. https://jmapps.ne.jp/ehime_art/det.html?data_id=9525

Sugiura, M., & Kobayashi, S. (2015). Peddling and second-hand clothing trade: A comparative study of marginality in urban commerce in early modern Edo and Amsterdam [行商と古着商: 近世江戸とアムステルダムの都市内商業における周縁性の比較考察]. In A. Tamura, T. Kawana, & H. Uchida (Eds.), The margins of the state: Comparative social history of privilege, network, and coexistence [*國家の周縁: 特權・ネットワーク・共生の比較社會史*] (pp. 201–240). Tosui Shobo.

Takei, N. (2014). Distribution innovation and evolution of large-scale gofuku merchants: Changes in the commodity purchasing system of Mitsui Echigoya [*大規模呉服商の流通革新と進化: 三井越後屋における商品仕入體制の變遷*]. Chikura Shobo.

Tamada, M. (2008). The circulation of the resources of used clothes that supported clothing lifestyles in Japan: A study from the literature of wholesale business and merchants, circulation of used clothes in Edo and the early Meiji era [衣生活を支えた故繊維資源の國内循環: 近世・近代初期の古着問屋・商人と流通史料からの考察]. *服飾文化學會誌, 9*(1), 31–41. https://cir.nii.ac.jp/crid/1520290884148278016

Tamada, M. (2010). Transition of textile recycling in Japan: Establishment of early modern second-hand clothing wholesalers and uses of waste fibers [日本における繊維リサイクルの變遷: 近世古着問屋の成立と故繊維の用途]. *繊維機械學會誌, 63*(10), 559–562. https://doi.org/10.4188/transjtmsj.63.559

Tanimoto, M. (1998). Indigenous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textile industry in Japan: Market formation and family economy [*日本における在來的經濟發展と織物業: 市場形成と家族經濟*]. Nagoya University Press.

Terauchi, Y. (2022). Early modern clothing distribution and merchants: Focusing on the local city of Utsunomiya [*近世の衣料品流通と商人: 地方都市宇都宮を中心に*]. Yamakawa Shuppansha.

Teruoka, I., & Oshiro, K. (2025, October 3). *Eighty years after the war and the Reiwa rice turmoil: Rethinking agriculture and the state* [*戰後80年と「令和の米騒動」 問われる農業と國家のあり方*]. Wedge ONLINE. https://wedge.ismedia.jp/articles/-/39112?page=2

Torii, K. (ca. 1788). *Women washing clothes* [Woodblock print].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Clarence Buckingham Collection (1925.2335). https://www.artic.edu/artworks/21732/women-washing-clothes

Utagawa, H. (1856). *Surugacho, from One hundred famous views of Edo* [*名所江戸百景 する賀てふ*] [Woodblock print]. Edo-Tokyo Museum (83200008). Tokyo Museum Collection. https://museumcollection.tokyo/works/6234886/

Utagawa, H. (1873). *Tokyo Surugaei kokuritsu ginko hanei no zu* [*東京駿河衛國立銀行繁榮圖*] [Woodblock print]. Postal Museum Japan. https://www.postalmuseum.jp/collection/genre/detail-161547.html

Yamamoto, M. (n.d.). *Modern department stores and art: From kimono to world expositions and contemporary art, focusing on Takashimaya* [*近代の百貨店と美術: 着物から萬博・同時代美術まで 高島屋を中心に*]. AMeeT. https://www.ameet.jp/feature/6010/

Yamamoto, S. (1900). *Kanda Iwamotocho second-hand clothing market* [*神田岩本町古着市場之圖*]. Fuzoku Gaho, no. 205. Wikimedia Commons.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E7%A5%9E%E7%94%B0%E5%B2%A9%E6%9C%AC%E7%94%BA%E5%8F%A4%E7%9D%80%E5%B8%82%E5%A0%B4%E4%B9%8B%E5%9B%B3.png

Yasuoka, S. (1998). A study on the history of zaibatsu formation [*財閥形成史の研究*] (Expanded ed.). Minerva Shobo.